

광주문예회관 외부 수입 출연금·여비로 지출

시 감사위, 기금운영·오디션 등 7건 부적정 행정 사례 적발

광주문화예술회관이 기금운영과 출연료 집행에 소홀히 했다가 광주시의 감사에 적발됐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최근 문예회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모두 7건의 부적정 행정 사례를 적발해 7건의 행정상 조치, 2건의 재정적 회수와 함께 관계 공무원 2명에 대해 훈계 처분을 내렸다.

사업예수 집행기금의 경우, 지역 사회 문화예술 진흥이라는 특수한 행정 목적을 달성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 통례인데 2015년

11건 1억280만원, 2016년 27건 2억2000만원에 이르는 외부 공연수입을 일반회계에 넣지 않고 단원들의 출연보상금과 임차비, 여비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고,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예산총계주의에 어긋난다.

또 공연 소요비용에 대한 예측 잘못으로 공연비를 기금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거나 일반회계에서 끌어와 총당하는가 하

면 기금운영 관리부서임에도 기금수입이 늘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에도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년음악회 협연자를 공모하면서도 심사위원 2~6명에게 합격자 단 1명에게만 'O.X' 표기를 하도록 해 비교평가가 안 되는 것은 물론, 오디션의 신뢰성을 저해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밖에도 광주 문예회관은 무료 초대권 배부의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직원 및 홍보단체에 지속해서 배부하거나

예술단체 등에 50~100매씩 일괄 배부하면서 사용내역을 명확히 정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예회관은 이와 함께 공연장 관리자 등 안전교육을 시행하지 않고 무대 조명용 변압기 교체 공사를 하며 공사 원가 계산을 잘못해 74만여 원의 공사비를 과다 집행해 회수 조치됐다.

한편 광주시립예술단은 교향악단을 비롯해 합창단, 국악관현악단, 소년소녀합창단, 발레단, 극단, 국극단 등 모두 7개로 구성돼 있고, 오페라단은 창단을 준비 중이다. /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전남도의회 의원 27명

도정질문 신청 이름알리기?

전남도의회 의원 27명이 무더기로 도정질문을 신청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정질문을 통한 '이름 알리기'에 나섰다. 분석도 나오고 있다.

24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다음달 4일 개최하는 임시회에서 3일간(9월6~8일) 진행되는 도정질문을 위해 신청한 의원은 총 27명이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15명, 국민의당 11명, 민중연합당 1명 등이다.

의원들이 대거 도정질문에 나선 것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양당 체제로 더욱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지막 '수확'을 거두겠다는 정치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또 일부 의원은 권한대행 체제하의 도정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집행부를 압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특히 도정질문 시기와 맞물려 이날 말이나 9월 초 신입 도지사 권한대행의 인사가 있을지도 관심이이다. /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중 광동성 강타한 태풍 '하토' 중국 광동성 주하이 해변에 23일(현지시간) 태풍 '하토'가 몰고 온 거대한 파도가 들이치고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울퉁한 파도가 이날 홍콩을 거쳐 주하이, 마카오 등 대륙 남부를 강타해 최소 12명이 숨지고 수백여 명이 다쳤다. / 연합뉴스

광주시·전남도, 국정과제 대응 현안 시책 발굴

오늘 시·도별로 종합토론회

공약에 맞춘 추진 전략 마련

광주시와 전남도가 새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춘 대응과제 발굴과 국정과제 세부 실천을 위해 시책 개발에 나선다. 특히 국비 확보를 위한 논리개발에 힘쓰며 국회 예산심의 막판까지 내년도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광주시는 대통령 공약 실천과제 28건과 신규시책 38건을 개발하고, 전남도도 호남고속철도 2단계 조기 완공 등 도 차원의 218개 대응과제를 선별했다.

광주시는 25일 광주시의회에서 대통령

공약 및 국정과제 연계 시책보고회를, 전남도도 같은 날 전남 영암군 호텔현대 컨벤션홀에서 국정과제 대응 종합토론회를 연다.

광주시는 이번 보고회에서 국정과제에 반영된 지역공약을 28개 세부과제로 분류하고, 국정과제와 연계해 발굴한 신규시책 38건과 함께 타당성·실효성 등을 논의한다.

지역발전의 싱크탱크격인 광주전남연구원도 국정과제 연계한 시책을 제안받아 과제별 타당성과 실효성 등을 검토해 10건은 장기추진 과제로 분류하고 6건은 시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이번 보고회에 이어 부시장들

중심으로 실국별 심층보고회도 개최한다.

지역공약을 단기·중기·장기추진 과제로 분류하는 등 맞춤형 추진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9월부터는 당협협의회와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한 국회방문 등을 통해 국정과제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전남도도 김갑섭 전남지사 권한대행, 22개 시·군 부단체장, 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전남도는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전남 공약과 관련한 사업 28건, 신규 사업 118건, 계속 사업 72건 등 218건의 대응과제를 자

체 발굴했다.

공약 관련 사업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 조기 완공 ▲광양항 경쟁력 강화 기반 시설 확충 ▲혁신도시 중심 혁신 클러스터 조성 ▲한진 공대 설립 ▲첨단 스마트 팜 단지 조성 ▲이순신 호국 관광벨트 조성 ▲차세대 이차전지 및 에너지 저장장치(ESS)산업 생태계 조성 등이다.

신규 과제로는 ▲유·무인기 인종 통합 관제 인프라 구축 ▲전남 청년펀드 조성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분원 설립 ▲마한 역사테마파크 조성 ▲도시재생 뉴딜 사업 ▲광양항 묘도 항만 재개발 ▲탄소 제로기적의 숲 조성 ▲6차 산업형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 ▲라다 송어·연어 산업단지 조성 ▲첨단화학 신소재 부품·모듈 실증화 사업 등이 포함됐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전남도 2차 추경 1200억 증액 편성

일자리 창출·복지 수요 대응

전남도는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6조8445억원 규모로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도의회에서 이미 확정된 기정 예산(6조7245억원)보다 1200억원 늘어났다.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 등 주요 현안 사업비를 반영하고, 사회적 취약계층 의료급여 등 복지수요에 대응하기로 했다고 전남도는 설명했다.

분야별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내 투자기업 지원 68억원, 일자리 창출 시·군 공모 사업 50억원,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20억원 등 모두 204억원 늘어난 2419억원이다.

친환경농업 육성과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청년 농업인 6차산업화 기반구축 15억원, 고병원성 조류독감(AI) 소독안정자금 지원 9억원, 지방어항 보수·보강 및 재해예방 사업 6억원 등 121억원 증액된 1조1055억원이다. 관광·문화사업 육성사업과 스포츠 산업 활성화 분야는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101억원 등 118억원 늘어난 3494억원이다.

서민 생활 안정과 복지·건강증진 분야는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인 차세대안심센터 설치 운영 169억원, 노인 일자리 사업 68억원 등 315억 증가한 1조8443억원이며,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지역개발 분야는 43억원 줄어든 3690억원이다.

이밖에 쾌적한 환경조성 분야에 4920억원, 일반 공공행정과 기타 분야에 8590억원이 편성됐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수협, 240억 들여 나주혁신산단에 수산물 가공공장

전남도·나주시-4개 기관·기업 358억원 규모 투자협약 체결

전남도도와 나주시는 24일 나주시청에서 수협중앙회 등 4개 기관·기업과 총 358억원 규모 투자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125명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이날 협약에 따라 수협중앙회는 나주 혁신 산단 1만3000여㎡ 부지에 240억원을 투자해 2020년 말까지 수산물 가공공장을 건립한다.

공장이 가동되면 55명에게 새 일자리가 생기고 전남 수산물을 광주를 비롯한 대도시와 미국·대만·중국 등 해외에 공급하게 된다.

동우전기는 혁신 산단 7000여㎡에 48억원을 들여 내년까지 전기회로 개폐기·차단기 제조공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동우전기는 경기 평택에 본사를 둔 송배전 기자재 전문 제조 기업이다.

헬스미는 나주 동강면 6000여㎡에 40억원을 투자해 내년까지 면을 기를에 튀기지 않고 바람에 건조하는 비유당 쌀라면 제조공장을 건립한다.

헬스미는 전남 생물산업진흥원 등에서 10여년간 쌀라면 제조 기술을 연구해 지난해 새롭게 발인을 설립했다.

하늘미소축산은 혁신 산단 6000여㎡에 30억원을 들여 내년까지 돈육 가공공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나주 혁신 산단은 이번 투자협약으로 전체 분양 대상 120만4000㎡ 가운데 54만㎡가 분양돼 44.9%의 분양률을 기록하게 됐다.

/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전남도, 곡성 수도암 목조 관음보살좌상 등 9건 문화재 지정

전남도는 곡성 수도암 목조 관음보살좌상좌상 등 9건을 유·무형 문화재, 문화재자료로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곡성 수도암 목조 관음보살좌상(觀音菩薩坐像)과 복장유물(腹藏遺物), 보성 죽곡정사 목판, 강진 병영 박약국 문적(文籍) 등 3건은 유형문화재 329~331호로 지정됐다.

조성 연대(1754년), 원 봉안처(관음사 무실암), 조각승(계초 등 5인) 등을 알 수 있고, 조각 양식도 뛰어나다. 발원문, 목서명, 묘법연화경, 능엄경 등 복장유물도 확인돼 역사와 예술적 가치가 있다고 전남도는 설명했다.

죽곡정사 목판은 일제강점기 회봉(晦峰) 안규용(安圭容)이 동몽수지(童蒙須知), 향례합편(鄉禮合編) 등을 판각해 교재로 쓴 것이다.

박약국 문적은 무약기(買藥記), 제약책(製藥冊) 등 조선 시대 말기(1892~1902) 약국 경영 문서로 향촌 사회 의약 기관, 약재 유통 등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희귀한 기록유산으로 평가된다.

전남도는 무형문화재 59호로 가야금 병창을 지정했다. 화순 출신 가야금 명인 한숙구 등의 가야금 병창을 보존 전승한 김은숙씨가 보유자로 지정됐다.

곡성 오강사 최약연 초상, 해남 노송사 소장 고문서, 영광 단주리 석탑, 영광 송촌사 유허비(遺墟碑)와 고문서, 함평 자형정(紫形亭)은 문화재 자료 281~285호로 지정됐다. / 박정욱기자 jwpark@

농막형 1,350~2,350만원
옵션 선택가능

6평 | 단층형
7,9평 | 복층형
적층, 확장형

하우스콤마
전남 함평군 동함평산단길 19-95

상담 | 062-953-2370
사업분야 | 이동주택(콤마), UBR 욕실, 절수 수도꼭지

www.housecomma.com

의료광고심의일 제 170713-총-83334호

최단우리병원

100세 시대 무릎 건강! 무릎 퇴행성 관절염 치료는?

무릎의 통증의 시작은 무릎 내측의 관절 연골판 손상에서 시작됩니다. 이후 관절연골 손상이 되어 안쪽이 닳아지면 간격이 줄어들면서 오다리 변형이 됩니다. 결국, 오다리 변형을 일자다리로 수술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의 고질병 허리디스크! 내시경으로 절개없이 해결 가능?

비수술적으로 대부분 치료 가능합니다. 비절개로 어깨나 무릎처럼 양측 삽입구를 통한 일반 내시경 수술로 디스크 치료가능합니다.

세심한 검사! 정밀한 진단! 가족같은케어!

최단우리병원 비수술, 부분마취, 척추관절 치료!

대표전화 |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 공원 앞 위치!